이름:

개와 돼지

옛날 옛적에, 한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셨습니다.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무척 귀여워하셨습니다.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.

"참 착하구나. 집도 잘 지키고…."

할머니는 낮잠만 자는 돼지도 좋아하셨습니다.

"돼지야,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."

그러나 낮잠을 자고 있던 돼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.

돼	지	는		할	머	니	가		개	만		귀	여	워	한	다	고		생
각	하	였	습	니	다	·	어	느		날		돼	지	는		개	에	게	
물	었	습	니	다	·														
“	할	머	니	께	서	는		왜		너	만		귀	여	워	하	시	니	?”
“	그	것	도		몰	라	?	나	는		매	일		밤		집	을		지
키	는	데	,	너	는		밥	만		먹	고		잠	만		자	니	까	
싫	어	하	시	는		거	야	·”											
	돼	지	는		씩		웃	으	며		생	각	하	였	습	니	다	·	
‘	오	늘		밤	부	터		나	도		잠	을		자	지		않	고	
집	을		지	켜	야	지	·	그	러	면		할	머	니	께	서		나	를
더		좋	아	하	실		거	야	·’										
	밤	이		되	었	습	니	다	·										

	“	꿀	꿀	,	꿀	꿀	,	꿀	꿀	!”									
	돼	지	는		목	청	껏		소	리	를		질	렀	습	니	다	·	돼
지	의		꿀	꿀	거	리	는		소	리	에		할	머	니	는		잠	을
이	룰		수		없	었	습	니	다	·									
	‘	밤	새	도	록		잠	을		못		자	고		울	어		대	는
것	을		보	니	,	돼	지	가		병	이		났	나		보	다	·	내
일		아	침	에		의	사	를		불	러	야	겠	다	·’				
	날	이		밝	자	,	할	머	니	가		의	사	를		불	러		오
셨	습	니	다	·	의	사	는		돼	지	의		엉	덩	이	에		침	을
놓	았	습	니	다	·	돼	지	는		아	파	서		꿀	꿀	거	리	며	
엉	뚱	한		생	각	을		하	였	습	니	다	·						
	‘	할	머	니	께	서		집	을		더		잘		지	키	라	고	

침	을		놓	아		주	시	나		보	다	.’							
그	날		밤	에	도	,	또		다	음		날		밤	에	도	,	돼	지
는		큰		소	리	로		꿀	꿀	거	렸	습	니	다	·				
	“	꿀	꿀	,	꿀	꿀	,	꿀	꿀	!”									
	“	꿀	꿀	꿀	,	꿀	꿀	꿀	!”										
	할	머	니	는		돼	지		울	음	소	리		때	문	에		잠	을
잘		수		없	었	습	니	다	·	할	머	니	는		몹	시		화	가
나	셨	습	니	다	·														
	‘	밤	이	면		밤	마	다		울	어		대	니		잠	을		잘
수	가		없	구	나	·	내	일		아	침		날	이		밝	으	면	
장	에		내	다		팔	아	야	겠	다	.’								
	이	튿	날	,	할	머	니	가		돼	지	를		장	에		내	다	

파	셨	습	니	다	·	돼	지	는		할	머	니	의		사	랑	을		더
받	으	려	다		그	만		팔	려		가	고		말	았	습	니	다	·